

학업부진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대학도서관 서비스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Academic Library Service Strategies for Low-Achieving Foreign Students

장 덕 현 (Durk-Hyun Chang)**

목 차

- | | |
|---------|-----------------|
| 1. 서 론 | 3. 대학도서관 서비스 방안 |
| 2. 연구내용 | 4. 결 론 |

초 록

한국의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학업부진 유학생의 증가 및 이들의 중도 탈락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업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유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대학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학업부진 외국인 유학생들이 겪는 학습 장애 요인과 생활 측면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여기에 대학도서관이 개입할 여지는 없는지 가늠해 보았다.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A대학교에 재학중이면서 학업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수행 과정에서 어려운 점, 정보요구, 도서관 서비스 이용 현황과 요구사항 등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학도서관의 외국인 유학생 대상 서비스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하였다.

ABSTRACT

As the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n universities increases, there has been a rise in cases where academic under-performance leads to student dropouts. Consequently, providing support for international students facing academic difficulties has become a key concern for many universities. This study portrays the factors contributing to academic difficulties and life challenges faced by low-achieving international students and explores the potential role of university libraries in coping with these issues. Focusing on international students enrolled at A University who are struggling academically, the research examines their challenges in academic performance, information needs, current use of library services, and service need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aims to propose service strategies for university libraries to better serve international students.

키워드: 대학도서관, 대학도서관서비스, 이용자, 외국인유학생

Academic Libraries, Academic Library Service, User, Foreign Students

* 이 연구는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문현정보학과 교수(dchang@pusan.ac.kr / ISNI 0000 0004 6477 1402)

논문접수일자: 2025년 1월 24일 최초심사일자: 2025년 2월 1일 게재확정일자: 2025년 2월 13일

한국문현정보학회지, 59(1): 625-644, 2025. <http://dx.doi.org/10.4275/KSLIS.2025.59.1.625>

※ Copyright © 2025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글로벌화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보편화에 따라 고등교육의 국제화가 가속화되면서 한국의 대학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의 고등 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는 2003년 우리나라 전체의 유학생이 12,314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15배나 증가한 것이며, 2013년과 비교해도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다. 이러한 양적 성장은 고등교육의 질적 제고와 함께 유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 및 성공적인 대학생 활 수행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한국의 대학에 진학하고 있으며, 학령인구의 감소라고 하는 국내적 상황과 맞물려 국내 대학들이 유학생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그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해 세계 10대 유학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대학에서도 외국인 학생 유치와 재학 중 지원 그리고 진로 지도(placement)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성공적인 대학생 활을 보내기 위해서는 학습과 교육, 그리고 생활 전반 등 다양한 영역의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 반면, 국내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는 적

극적이지만 학업 유지나 생활 측면의 지원에는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결과적으로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유학생들도 증가하여 2018년 5,756명에서 2019년 8,596명, 2020년 9,867명으로 늘어났다. 2021년에는 10,335명이 발생해 1만명을 넘어섰다. 보도에 따르면 K대 학교 712명, S대 292명, Y대 238명 등에서 200명 이상의 유학생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할 정도로 중도탈락의 증가는 수도권과 지역대학을 막론하고 심각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유학생 출신 불법체류자도 증가하여, 지난 2018년 1,419명이었으나, 2020년에 4,692명, 2021년에는 6,947명으로 5배이상 증가했다(장혜승, 2022).

대학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가운데 대학도서관의 서비스는 학생들에게 학술 정보자원에 대한 접근, 동료간 교류의 기회, 그리고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어 능력의 한계, 문화적 차이, 그리고 정보 접근에 대한 불편함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학생 활을 수행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입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들이 축적되면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저하시키고 궁극적으로 졸업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대학을 떠나는 사례로 이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이 외국인 학생들의 학습과 ·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원활한 대학 생활을 위한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에 대하여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핵심 인프라로서, 연구와 교육 지원 뿐 아니라 학생활동과 캠퍼스 문화의 한 축으로 기능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있어 도서관은 단순한 학습

공간의 차원을 넘어 정보 리터러시 함양, 학술 자원 접근, 연구역량 강화, 그리고 생활 적응과 사회적 연결을 위한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다. 그러나 언어적 장벽과 문화적 차이, 그리고 문해와 정보 활용능력의 격차로 인해 상당수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도서관 서비스 활용에 있어 제약을 경험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필요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학업부진 외국인 유학생들이 겪는 학습 장애 요인과 생활 측면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대학도서관의 개입 가능성을 가늠해 보았다.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4년제 A대학교에 재학중이면서 학업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수행 과정에서 어려운 점, 정보요구, 도서관 서비스 이용 현황과 요구사항 등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학도서관의 외국인 유학생 대상 서비스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1.2 선행연구 분석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대학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최근에 이루어진 외국인 유학생의 도서관 이용에 관한 연구로 정보 이용 행태와 정보요구에 관한 연구가 주목할만한데, 예를 들어 윤정원(2022)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정착단계에 따른 정보요구 및 정보탐색행위를 조사하였는데, 정보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친구 등 여러 정보원을 사용하며, 웹사이트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경험을 표한 반면 소셜미디어나 친구 등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다.

한편으로 정경희와 김영순(2018)은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교육 서비스 경험에 대한 연구를 통해, 논문 검색 시 비용지불 문제와 정기적인 정보이용 교육프로그램 안내 부재를 지적하고 논문 및 리포트 작성을 위한 학술DB 특강, 정보 교육 등 도서관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학업지원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동정문과 오의경(2021)은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서관서비스 품질, 도서관 지속적 이용의도, 도서관불안을 측정하였는데, 도서관서비스 품질은 도서관 지속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도서관불안은 두 변인의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이 연구는 외국인 학생에 대한 정보요구 조사에 있어서 국내 학생과 차별된 정서적 배려가 필요함을 강조한 점이 눈에 띠인다. 유지윤과 정동열(2020)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이용자를 학생, 교원, 연구원으로 구분하여 도서관불안을 분석했는데, 이들을 위한 번역서비스, 도서관 이용교육,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도서관불안 완화·해소, 외국인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 외국인 교원의 연구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상기 선행연구들은 외국인 이용자의 도서관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도서관 맞춤형 서비스, 외국인 전담 사서의 배치, 번역서비스 제공 등 의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현황 분석과 일반적인 유학생 이용자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계가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 대상 서비스의 구체적인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실제 이용 경험 기반 서비스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반면, 이 연구는 유학생 중에서도 학업부진 학생을 특정하여 조사하였

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즉, 실증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반적인 서비스가 아닌 타겟 이용자 를 특정하여 제공되는 대학도서관의 서비스 개 선 방안과 정책적 제언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2. 연구내용

2.1 연구방법

연구를 위해서 A 대학교에 재학중인 외국인 학부 학생 중 2023년 1학기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기간은 2023. 11. 1. ~ 12. 18. 이었으며, 메신저를 통해 연구 참여 의향을 조사하였다. A대학교의 2023년도 1학기 학부 학사경고자 중 외국인은 총 39명이었으나 이 중 15명이 조사에 응하여 참여율은 38.5%였다. 질문지는 학생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메신저를 통해 한국어, 영어, 중국

어로 배포하였다. 질문에 대한 응답 지원과 질문지 회수를 위해 면담을 제안하였고, 이에 응한 5명을 대상으로 1:1 면담을 하면서 질문지를 작성하고 면담내용을 기록하여 보완자료로 활용하였다. 질문의 주요내용은 기초적인 설문 조사와 학습 및 생활 측면의 어려움, 정보입수의 애로사항, 도서관이용 행태, 도서관에 대한 희망 사항 등이었다.

조사 상담 참여자의 성별, 국가별, 소속은 〈표 1〉과 같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은 4:6이었고, 출신국가별로는 중국학생이 그리고 소속대학은 이공계인 그대학 학생이 가장 많았다. 응답자들의 성별, 출신국가별, 소속대학별 구분은 〈표 1〉과 같다.

2.2 조사결과

2.2.1 생활/진로관련

(1) 주거 형태 및 거주 인원

1명을 제외한 14명의 응답자가 대학 외부의

〈표 1〉 조사대상 구분

구분		인원(명)	비율(%)
성별	남자	6	40
	여자	9	60
국가별	중국	9	60
	베트남	2	13.3
	몽골	3	20
	우즈베키스탄	1	6.7
단과대학별	그대학	6	40
	ㄴ대학	1	6.7
	ㅇ대학	3	20
	ㅅ대학	3	20
	ㅈ대학	2	13.3
합계		45	300

숙소에 거주하고 있었다. 거주 형태는 모두 자취로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혼자 생활한다고 답했다. 원인은 학업성적 미달로 인한 기숙사 지원 자격 미달도 있었지만, 기숙사를 선호하지 않거나 학년이 올라가면서 기숙사보다는 자유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누릴 수 있는 외부 숙소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을 통해서 학생들간의 교류 또는 한국어 학습을 위해서는 기숙사가 유리한 것을 알지만 한국인 학생들이 외국인 사생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전례 등 불편한 점도 있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응답자들의 주거형태별 구분은 〈표 2〉와 같다.

(2) 학업외 경제활동(아르바이트) 여부
기타 경제활동(아르바이트) 여부에 '미참여' 응답이 더 많았으며 '참여' 학생도 3명(20%) 있었다. 참여 학생들은 경제적 어려움의 극복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험을 위

해 자국에서 창업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도 있었다. 그렇지만, 모두 체류 자격 외 활동허가 (S-3) 비자를 받지 않은 상태로 시간제 취업 비자 미소지 시 발생하는 불이익(별점 부과, 강제 출국 등)이 있어서 대답에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이었고, 면담에서도 실제 부업 시간이 길지 않아 학업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고 반응하였다. 조사 결과는 〈표 3〉과 같다.

(3) 한국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

한국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학업'이 8회(40%)이 가장 많이 선택되었다. 이어서 큰 차이 없이 '외로움'(20%), '경제적 어려움'과 '친구관계' 순이었다. 즉, '학업'을 제외한 다른 요소들이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학생들이 다양한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면담을 통하여 코로나19 팬데믹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대학 입학당시부터의 교류가 어

〈표 2〉 주거형태별 구분

구분		인원(명)	비율(%)
주거 장소	동거 인원		
교외(원룸)	자취	14	93.3
	1명	11	78.6
	2명	3	21.4
교내(기숙사)		1	6.7
합계		15	100

〈표 3〉 부업 참여 여부

구분		인원(명)	비율(%)
참여 여부	허가 여부		
있음 (3명)	그렇다 (0명)	0	0
	아니다 (3명) - 주말, 비정기적: 1회 8시간 등	3	20
없음		12	80
합계		15	100

려웠고 이에 따라 유학 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을 것이라는 답이 있었다. '친구관계'를 선택한 학생들도 비슷한 답을 내놓았다. 면담 결과 다수의 학생들이 학과에 유학생 수가 적어서 정보를 공유하기 힘들고, 한국인 재학생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동화되기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로 인해 학과 및 학교로부터 소외감을 느낀다는 답변도 많았다. 유학생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기회(문화체험 및 동문회 활동)를 보다 확대하고, 퓨터링 프로그램 외에 유학생이 한국 학생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밝히기도 하였다.

응답자들은 대다수가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과에서 제시한 표준 커리큘럼을 반드시 이수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를 반복하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었다. 면담에 참여한 학생들은 4년 동안에 한국인 학생들은 수강신청에 있어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그런 정보나 노하우가 없어 교과과정 이수가 매우 어렵다고 답하였다. 한국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수강후기 등에 대한 정보도 구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조사결과는 〈표 4〉와 같다.

(4) 평소 도움을 청하는 지인(복수 선택 가능)

이 항목의 복수응답에서는 '있다'와 '없다' 모두에, 즉 지인이 없다는 응답과 친구, 또는 (현지의) 가족을 동시에 선택한 학생들이 있었다. 면담을 통해, 지인이 있기는 한데 실제 도움을 청했을 때 흔쾌히 응할 것 같지는 않아서 그렇게 표기했다는 답을 들었다. 도움을 청할 지인이 있다고 응답한 18명 중, '친구'가 12회(40%)로 가장 많았으며, 지인이 "없다"라는 응답도 12명(40%)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대면 수업을 하지 않으면서 친구를 사귈 기회를 놓쳤다는 대답도 있었다. 조사 결과는 〈표 5〉와 같다.

(5) 졸업 후 진로(복수 선택 가능)

졸업 후의 계획으로 '한국 내 취업'이 6회(35.3%)로 1위를 차지하여 국내에서 취업하고자하는 희망이 강했다. 대학원의 경우 A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으나, 타 지역 대학원으로 진학하려는 학생들도 있었다. 이렇게 국내 취업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들이 다수인 반면 학생지원부서에서 제공하는 유학생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정보가 부족했다. 유학생들의 경우 여타 한국 학생들과 달리 취업 정보에 대한 접근성

〈표 4〉 한국 생활의 최대 어려움(복수 선택 가능)

구분	선택 횟수(회)	비율(%)
학업	8	40
경제적 어려움	3	15
외로움	4	20
친구관계	3	15
기타(생활 방식, 어려움 없음)	2	10
합계	20	100

〈표 5〉 도움을 청하는 지인(복수 선택 가능)

구분(세부 선택지 복수 선택 가능)	선택 횟수(회)	비율(%)
있음 (18)	친구	12
	학과 선후배	3
	가족	2
	이성친구	1
없음 (12명)	12	40
합계	30	100

〈표 6〉 졸업 후 진로(복수 선택 가능)

구분	선택 횟수(회)	비율(%)
대학원 진학	5	29.4
한국 내 취업	6	35.3
귀국 후 취업	4	23.5
한국 자영업	1	5.9
기타(해외 취업)	1	5.9
합계	17	100

및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모국으로 돌아가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도 적지 않았지만, 고학년 학생들 중에는 본국에서의 취업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졸업이 늦어져 이를 놓치는 일이 있을 것을 걱정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사결과는 〈표 6〉과 같다.

2.2.2 학업관련

(1) 한국어 능력(TOPIK) 여부

우선 학생들이 적절한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A대학교는 TOPIK(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을 최소한의 입학자격으로 정하고 있지만, 많은 학과에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상급을 획득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

다. 특이한 점은 한국어능력 6급을 소지하였음에도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들이 약 50% 가까이 되는 점이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한국어 능력 부족이 학업부진의 주된 원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학업 동기 상실 등 다른 생활 측면의 원인이 학업부진을 야기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조사결과는 〈표 7〉과 같다.

(2) 학업 지장의 원인

학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주된 이유로 '학습의지 부족'을 선택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학습의지 다음으로 한국어 실력의 한계 때문에 학업에 많은 부담과 어려움을 가지는 학생들이 많았다. 특징적인 것은 학습의지 부족과 한국어능력 부족이 중복으로 선택되는 비율이 낮다는 것이다.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 결과

〈표 7〉 한국어 능력(TOPIK) 여부

구분	인원(명)	비율(%)
4급	7	46.6
5급	1	6.7
6급	6	40
없음	1	6.7
합계	15	100

실제로 다수의 학생들이 상당한 한국어 구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공에 흥미를 잃어버리거나 교양, 기초과목 위주의 저학년 때와는 달리 심화된 전공 수업과 프로젝트 기반 수업의 난이도를 따라가지 못해 학업 성취가 낮은 학생들이 많았다. 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데 대한 압박감과 불안감을 느낀다는 학생들도 있었다. 학업부진으로 인한 수업 연한 초과에 대한 우려, 취업 및 진로 문제, 교육관계 등 개인적인 문제 등 다양한 사유로 학업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조사결과는 〈표 8〉과 같다.

(3) 수업에서 가장 힘든 점

한편 수업에서 있어서는 '한국어 능력' 부족이 가장 힘든 점이라고 꼽은 학생들이 많았다. 이 답은 주로 한국어능력시험 급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학생들로부터 많이 나왔다. 물론 유학

생들은 입학 기준을 충족하여 대학에 들어오지만, 일단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나 동기가 적다고 말하였다.

일단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한국어를 구사하는 경우라도 특히 학술적 한국어(Academic Korean) 습득에 소홀한 점을 원인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수학, 컴퓨터, 문학, 한국사, 시사 등 기초/교양 지식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다는 대답을 한 학생들도 상당수 있었다. 수업이 많은 양의 독서리스트(Reading List)를 토대로 진행되는 경우 이들을 읽어내기에 과한 시간이 투입되고, 특히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대답도 적지 않았다. 특히 전공필수 과목이 영어로 진행되는 경우 어려움이 많다는 답이 많았고, 이는 졸업요건 충족 여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8〉 학업 지장의 원인(복수 선택 가능)

구분	선택 횟수(회)	비율(%)
학습의지 부족	10	50
한국어능력 부족	6	30
심리적 불안	4	20
합계	20	100

〈표 9〉 수업에서 가장 힘든 점(복수 선택 가능)

구분	선택 횟수(회)	비율(%)
한국어능력	8	38.1
영어능력	2	9.5
수업방식(방언 사용, 토론 등)	1	4.8
기초학습능력(수학, 컴퓨터, 문학/역사, 독서력)	6	28.6
기타	4	19
합계	21	100

2.2.3 학사 관련

(1) 학사 관련 정보 입수

재학중인 학과의 교육과정 이해 정도에 대한 질문에 “보통”과 “잘 알고 있다” 항목이 동일한 응답률을 보였다. 많은 학생들이 수강해야 하는 과목들과 교육과정 이수 방식(모듈, 트랙, 선수과목 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입학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학교 방문 없이 온라인 수강으로 대학생활을 시작한 학생들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특히 졸업 요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못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장학금 지급 기준에 대한 이해에 관한 질문에 “전혀 모른다”라는 응답이 40%를 차지했다. 학업부진 외국인 학생들의 경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성적 때문에 장학금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편이긴 하나, 정보를 아예 모르는 경

우가 있는 것은 의외였다. 교내 근로 신청도 해 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 많았다. 결과는 〈표 10〉과 같다.

(2) 학사정보 입수 경로

학사관련 정보는 대부분 ‘학생지원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수한다고 답한 학생들이 많았다. 이유를 물었을 때, 전반적인 정보들을 얻기 쉽고, 수강 신청이나 등록을 할 때마다 사용하기 때문에 타 정보원보다 접근성이 좋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대학 공지 및 학사일정을 확인하기도 용이하다는 답이 많았다. 유학생 단체 채팅방이 가장 적은 수치로 나왔는데, 면담 결과 생활정보 등을 입수하기 위해서는 채팅방이 유리한 면이 있지만, 학사정보는 공식채널을 통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조사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0〉 학사 관련 정보 이해도

항목	구분					총계 (인원-명, 비율-%)
	전혀 모름	조금 알고 있음	보통	잘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교육과정 정보	1(6.8%)	2(13.3%)	5(33.3%)	5(33.3%)	2(13.3%)	15(100%)
장학금 정보	6(40%)	4(26.7%)	3(20%)	2(13.3%)	0(0%)	15(100%)
졸업기준 정보	0(0%)	5(33.3%)	4(26.7%)	5(33.3%)	1(6.7%)	15(100%)

〈표 11〉 학사정보 입수 경로(복수 선택)

구분	선택 횟수(회)	비율(%)
대학교 홈페이지	3	7.9
국제처 홈페이지	4	10.5
학생지원시스템(push 포함)	9	23.7
이메일	10	26.3
친구를 통해	10	26.3
기타(유학생 단체 채팅방)	2	5.3
합계	38	100

2.2.4 도서관 이용 관련

(1) 월 평균 도서관 이용 횟수

대학도서관 이용 빈도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한 학기에 한두 번 방문한다는 학생이 5명으로 가장 많아, 방문하지 않는다는 대답(4명) 다음 이었는데, 이 두 응답을 합하면 응답자 60%가 대학도서관은 거의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방문자들은 대부분 과제나 자습을 위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 2~3회 정도 도서관을 이용하는 능동적인 이용자는 1명으로 응답자 중 6.7%, 월 1~4회 정도 이용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25% 정도였다. 조사결과는 〈표 12〉와 같다.

(2) 도서관 이용 목적

대학도서관 방문/이용 목적을 프로그램 이용

(독서/문화 프로그램, 이용교육 등), 자료 이용(도서 대출, 자료 열람, 인터넷 이용 등), 공간 및 시설 이용(컴퓨터, 인포메이션 커먼스, 열람실 등)의 세 가지로 나누어 질문하였으며, 시설 이용 경험이 가장 많았고, 프로그램 참여 경험자가 가장 적었다. 응답해 준 학업부진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대체로 공간 및 시설 이용을 위해 도서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구체적인 이용 목적을 물었더니, 시험기간에 학습을 위해서, 자료복사를 위해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팀 프로젝트 수행 미팅 때문에 도서관 시설을 이용했다는 답변이 있었다. 도서관 소장 자료에 대해서는 과제 등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이용한다고 하였지만 소수였다. 그리고 도서관 진행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표 13〉과 같다.

〈표 12〉 월평균 도서관 방문 횟수

구분	인원(명)	비율(%)
방문함	방문빈도: 한 학기 1~2회	5
	방문빈도: 월 1~2회	2
	방문빈도: 월 3~4회	3
	방문빈도: 주 2~3회	1
방문하지 않음	4	26.7
합계	15	100

〈표 13〉 도서관 이용목적(복수응답)

구분		응답수	비율(%)
프로그램 참여	있다	3	6.7
	없다	12	26.7
자료 이용	있다	5	11.1
	없다	10	22.2
시설 이용	있다	9	20
	없다	6	13.3
합계		45	100

(3) 도서관 홈페이지(앱 포함) 이용 빈도
도서관 홈페이지에 필요한 정보 및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가 자주 공지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게시판 공지 확인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홈페이지(앱)을 ‘한 학기 1~2회’ 방문한다는 응답이 7명으로 높게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2/3 가량이 도서관 홈페이지 방문, 앱 사용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도서관 앱 사용 여부를 물었는데, 앱을 아예 깔아두지 않은 학생들도 있었고, 자리 배정 시스템만 사용한다는 학생들도 있었다. 도서관 공지사항을 외국어로 push서비스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따라서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기초적인 다국어 서비스 제공, 중요한 공지사항은 다국어(한, 영, 중) push로

제공하는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사 결과는 〈표 14〉와 같다.

(4) 도서관 학습지원 프로그램 참여도 및 사유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 보니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 이 있는 학생은 3명에 불과했고, 응답자의 80% 가 ‘없음’을 택하였다. 미참여 사유로는 정보 부족을 이야기한 학생이 6명(50%)으로 가장 많았다. 합격자 안내, 오리엔테이션, 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안내가 제공되지만 관심이 부족하고, 학기 초에 비슷한 시기에 많은 정보들이 전달되다 보니 일일이 신경 쓰기 어렵다는 대답이 많았다. 공지사항을 자주 확인하지 않아 매번 시기를 놓친다

〈표 14〉 도서관 홈페이지(앱 포함, 자리배정시스템 제외) 이용 빈도

구분		인원(명)	비율(%)
알고 있다 (14명)	방문빈도: 한 학기 1~2회	7	50
	방문빈도: 월 1~2회	2	14.3
	방문빈도: 월 3~4회	2	14.3
	방문빈도: 주 2~3회	0	0
	방문안함	3	21.4
모름		1	100
합계		15	100

는 학생들도 있었다.

참여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응답 3건은 튜터링에 국한되었다. 학생들의 정보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튜터링 프로그램 이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 홍보할 필요가 있는데, 도서관이 외국인 근로장학생을 지정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참여 안내 push 알림 또는 유학생 커뮤니티 단체대화방 등을 활용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안내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조사결과는 〈표 15〉와 같다.

(5) 도서관 온라인 학습지원(주제가이드)에 대한 평가

A대학교 도서관은 홈페이지에 전공별로 온라인 주제가이드를 마련하여 학습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학업에 도움이 된다'라는 응답이 7명, '도움이 되지 않음'이나 '기타(존재를

모름)'이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반 이상이었다. 오히려 면담과정에서 주제가이드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는 학생들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의사를 표하기도 하였다. 주제가이드에 대하여 알고 있는 학생들도 적극적인 이용자라기보다는 1학년 수업시간에 도서관이용교육을 받으면서 해당 전공의 주제가이드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기초학습을 하기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도서관이 전공 주제가이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주제가이드는 모두 한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학생들이 언어능력 향상에 전공 어휘력을 연마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데, 원활한 사용을 위해 다국어 가이드를 보완적으로 편성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 같다. 조사결과는 〈표 16〉과 같다.

〈표 15〉 도서관 학습지원 프로그램 참여도 및 사유

구분		응답	비율(%)
있음 (3명)	튜터링	3	100
	합계	3	100
없음 (12명)	잘 몰라서	6	50
	시간 부족	3	25
	관심 부족	2	16.7
	성격	1	8.3
	합계	12	100
최종 합계		15	100

〈표 16〉 도서관 온라인 학습지원(주제가이드)에 대한 평가

구분	인원(명)	비율(%)
학업에 도움이 된다	7	46.7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20
기타(존재를 모름)	5	33.3
합계	15	100

(6) 도서관에 대한 요구사항

마지막으로 A대학 도서관이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특화된 서비스를 시행한다면, 응답자들은 어떠한 서비스를 희망하는지 질문하였다. 1순위와 2순위로 나누어 2개의 대답을 하도록 하였는데, 과제와 학습지원을 1순위로 희망한다고 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도서관에서 문해/튜터링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면 학업 수행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답한 학생이 많았다. 이어서 외국어자료/가이드, 외국인 전용 공간, 다국어 도서관 안내가 같은 빈도로 요청되었다. 종합 결과 또한 과제와 학습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독서/문해/튜터링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는 거의 없었고, 기존 연구들에서 중시한 외국인 사서에 대한 요청도 많지는 않았다. 조사결과는 〈표 17〉과 같다.

2.3 결과 분석

2.3.1 언어 장벽

외국인 학생들은 학업 자료나 논문을 이해하는 데 언어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로 인해 학습 속도와 과제 수행에 제한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참여자 대부분이 대학 입학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한국어능력 (TOPIK)급수를 가지고 있었으나, 생활 속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능력은 다른 영역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특히 수업 중에 담당교수의 강의 습관이나 말하는 속도, 영어 발음과 방언 사용 등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답하였다. 특히, 속담, 비유적 표현, 역사적 상식에 근거한 설명, 문학적 표현, 전문학술용어(jargon), 그리고 영어식 표현 등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문해력 측면에서의 약점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인 면담과정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어 능력 중에서도 특히 쓰기 능력이 가장 부족하다고 답하였다. 이는 학술 자료 검색이나 리포트 작성 시 어려움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정해진 시간 내에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중간/기말고사 시에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말하였다. 수업에서 사용해야 하는 학술 데이터베이스 사용이나 전문 자료 검색 시 한국어로 된 전문 용어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하였다.

〈표 17〉 도서관에 바라는 외국인 대상 서비스(1, 2순위 복수응답)

구분	1순위		2순위		전체(가중치부여)	
	응답자수	빈도	응답자수	빈도	응답자수	빈도
외국어자료/가이드 확충	2	13.3	3	20	7	15.6
독서/문해/튜터링 프로그램	3	20	2	13.3	8	17.8
문화·예술 프로그램	0	0	1	6.7	1	2.2
과제 및 학습지원	5	33.4	3	20	13	28.9
외국인전용 소설 공간	2	13.3	2	13.3	6	13.3
외국인 사서의 정보서비스	1	6.7	3	20	5	11.1
다국어 도서관 안내/홍보	2	13.3	1	6.7	5	11.1
계	15	100	15	100	45	100

2.3.2 전공에 대한 이해 및 흥미 부족

이공계 학생에게서 전공에 대한 이해와 흥미가 떨어지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전공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경우에도 학년이 올라가면서 상승하는 전공 난이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학생이 많았다. 적성 또는 흥미와 상관없는 전공을 택하여 어려움을 겪거나 수학, 과학, 영어 지식이 부족하여 전공을 따라갈 수 없다는 학생들도 있었다. 이 경우 평점 평균이 낮으면 전과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딜레마를 겪게 되는 학생들이 있어서,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자유전공제도나 전과 기준 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학생도 있었다. 고학년의 경우, 입학 당시나 저학년 때는 전공에 열의가 있었으나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점점 흥미를 잃고 성적이 함께 떨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휴학과 복학을 반복한 학생들은 복학 후에 오히려 전혀 낮선 동료 학생들과 맞닥뜨려야 하는 등 학업에 쉽게 적응하지 못해 낮은 의욕과 성취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2.3.3 학사/학습정보 접근 문제

한국 대학의 학사지원시스템이나 LMS, 그리고 자료 검색과 이용을 위한 도서관 시스템과 학술 데이터베이스 사용법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자료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A대학교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만, 유학생들의 입국시기가 달라 이에 맞추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들의 경우, 학과에서 제시한 커리큘럼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매 학기 전공 수업을 최

대한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이는 학업으로 인한 부담과 좌절감으로 이어지고 학업에 대한 자신감과 성취동기를 저하시키게 된다. 특히 면담과정에서 내국인 학생들의 경우 수강신청에서부터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을 적절히 분배하여 수강신청을 하거나 학과 내외에서 트랙과 모듈, 그리고 부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등을 활용하는 정보와 노하우를 가지고 교과과정에 접근하고 이수하는 반면, 유학생들은 그러한 정보도 없고 노하우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한편, A대학교는 모든 신입생이 도서관이용 교육(온라인/오프라인)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 모르는 유학생들도 있었고, 온라인 교육의 경우 '틀어두기만 한다'는 식으로 이수는 하되 제대로 집중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하였다.

2.3.4 사회적 연결의 부재

유/청소년기를 다른 문화 속에서 보내고 한국에서 성인으로서의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외국인 학생들은 학습 방법, 과제 수행 방식뿐 아니라, 의식주 해결, 시간 관리, 경제생활 등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언어와 학업 부진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고립감과 자존감 저하로 이어지고 중도탈락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다수의 학생들이 학과에 편히 연락할 수 있는 지인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하였다. 저학년일수록, 한국어 능력이 미흡할수록 학업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면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외국인 유학생 뿐 아니라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에게 교우관계는 성공적인 정착, 학교와 학과에 대한 소속감 증진을 위해 무척 중요하다. 동문회가 있는

국가의 학생인 경우, 동문회에 참여하여 서로 교류하고 정보를 공유하지만,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다'면서 그곳에서 공유되는 정보가 충분하지는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2.3.5 학업 이외의 활동

취업 준비, 자격증 준비 등 학사 이외의 활동에 집중하느라 학업을 소홀히 한 학생들이 있었다. 실제로 유학생들도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차치하면 진로·취업 고민, 번아웃 등 한국인 학생들과 유사한 고민을 갖고 있었지만, 한국 학생들보다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하여 이러한 문제를 쉽게 해소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어가 능통한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간의 편차도 컸다.

학생들은 주로 정보 부족과 시간 부족 때문에 대학의 비교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였다고 답하였다. 학업 측면에서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전공수업 등에 부담을 느껴 다른 활동에 소극적이라고 답한 학생들도 다수 있었다. 이런 학생들은 유익한 프로그램 소개를 받고도 참가를 망설이는 경향이 많았다. 프로그램 참가 경험이 없는 경우 (심리적) 진입장벽을 느끼는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낮추기 위하여, 프로그램 체험을 위한 단기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대학도서관 서비스 방안

3.1 학사/교과과정 이행 지원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들의 경우, 앞서 기술

한 바와 같이 대부분 수강신청 요령 및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개인 역량(한국어 능력, 전공기초 이해도 등)을 고려한 수강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서관 홈페이지의 '수업교재 정보(Reserve Collection)'의 메뉴를 확장하여 수강신청 정보, 기 수강자의 수업 추천, 선수과목 정보, 수업 이수를 위한 기본 소양, 모듈 및 트랙 정보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반복적으로 학사경고를 경험한 학생들은 활동 참여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 이메일 또는 push 알림 등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수단보다는 학과사무실을 통한 적극적인 접촉을 통해 학생들이 관련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다수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과 내에 유대감을 형성할 만한 사람이 적은 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인 유학생 출신의 전담 사서나 대학원생 조교를 배치하고, 대학 내 유학생 동문회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의 수업 후기 등도 함께 제공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아울러 도서관 프로그램의 홍보와 정보유통의 채널로서 WeChat이나 WhatsApp과 같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선호하는 메신저를 통한 소통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3.2 학습 지원

3.2.1 다국어 학습자료 제공

다양한 언어로 쓰여진 전공 자료와 교양도서, 시사자료 등을 구비하여 유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고, 한국어에 대한 언어 장벽을 낮출 수 있다. 학업부진 학생들의 경우, 한국어나 영

어로 된 교재를 이해하고 진도를 따라가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모국어로 된 유사한 내용의 교재를 통해 내용을 이해하고 다시 한국어 텍스트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수학이나 과학 영역의 주요 기초교재, 한국의 역사 등에 대해서는 과거 또는 현재 수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의 모국어판 출판물이나 유사한 내용의 해당 외국어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이들의 학습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3.2.2 교육 지원 프로그램

외국인 유학생의 주된 고민이 언어문제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학술 한국어 (Academic Korean)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연구윤리와 학술적 글쓰기 교육을 지원하는 다국어 튜토리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학도서관들은 대체로 학부도서관(Undergraduate Library)에 Academic Center 또는 Writing Center를 설치하거나 아예 도서관의 이름을 개명하기도 하며, 이 센터에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세션을 설정하고, 전문적인 글쓰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리노이대학의 경우 “International Student Library Services”를 통해 학과별 맞춤형 도서관 이용 교육, 표절 예방과 인용 방법에 대한 워크샵을 제공한다. 유학생의 언어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국어 서비스 제공, 외국인 맞춤형 이용자 교육 실시, 그리고 전담 사서 배치를 통한 지원도 함께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원광대 도서관의 경우 중국인 유학생들의 논문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인 통역이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함께 진행하는

데, 중국인 통역(한국어, 중국어 가능한 조교)은 국제부서에서 지원하며 1시간 단위 총 4회 교육을 진행(KSDC DB를 활용한 설문조사 작성법, PQDT 논문 검색법, 중앙도서관 DB 활용방법 등)하고 있다.

3.2.3 문해 프로그램

다수의 외국인 학생들이 학술적 문해(Academic Literacy)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일상의 언어와 강단의 언어가 상당히 달라 이해가 어렵고 혼란스럽다는 반응이었다. 따라서 문해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학생들이 학문적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돋는 것이 필요하다. 학문적인 글쓰기, 연구방법, 자료 분석 방법 등을 배우고, 학술 커뮤니티의 속성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의 대학에서는 영어 강좌나 영어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에세이나 리서치 페이퍼 작성, 문법 및 문장 교정(proof reading) 등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학생들이 영어 텍스트를 더 잘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돋는 독서 프로그램도 좋을 것이다.

한국의 역사나 유명한 시, 문학작품, 사자성어, 속담 등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데, 대학도서관 자체적으로 또는 박물관과 협력하여 역사현장에 대한 필드 트립을 기획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한국도서관협회가 시행하는 ‘길 위의 인문학’과 같은 프로그램을 외국인 학생 대상으로 시행하여 역사적 지식에 노출되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3.3 도서관 이용 지원

3.3.1 학술 정보 검색 워크숍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술 데이터베이스 사용법, 자료 검색 전략 등을 교육하는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교육을 실시하는 국내 대학은 약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의 전공 및 교양 수업 시간, 그리고 전공별 수업과 연계하여 도서관 이용교육을 진행하거나 학업부진 유학생들을 별도로 도서관에 초청하여 도서관 투어, 시설·자료 이용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이지숙, 이용재, 2022).

3.3.2 온라인 가이드 제작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대체로 대면 접촉에 대하여 소극적이었다. 원활하지 않은 언어적 소통 문제도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접촉을 원하지 않는 학업부진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서는 이용 가능한 도서관 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다국어 가이드를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맞춤형 이용자 교육으로 외국인 학생을 위한 특화된 정보이용 교육, 외국어자료 안내, 수업관련 정보 제공, 다국어 공지 및 안내 등을 내용에 담을 수 있다. 번역, 학습 스케줄 관리, 과제 도움 등의 기능을 갖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K-MOOC 강의 등에 대한 연결을 제공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콘텐츠 사용에 대한 마일리지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도 필요할 것이다. 플랫폼 내에 다국어로 제공되는 온라인 튜토리얼과 유학생을 위한 학술논문 작성법 워크샵, 학과별 전담 사서와의 1:1 상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이 경우 외국인 유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얻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International Student Library Advisory Board”를 운영하여 유학생들이 직접 도서관 서비스 개선에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조직을 상례화하는 것이다. 매월 정기 모임을 통해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 제공, 다국어 도서관 가이드 제작 참여, 유학생들의 필요를 직접 반영한 워크샵 기획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전담할 전담 사서가 배치되면 효과가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3.3.3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

학습을 위한 멘토링은 프로그램의 기획도 중요하지만, 멘토와 멘티를 어떻게 구성하는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성공적인 매칭은 학업부진 유학생의 모국 출신 동료 또는 선배 학생 학생으로 구성하는 것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이러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UC 버클리 도서관의 “Library Ambassador Program”的 경우 선배 유학생들이 신입 유학생들을 위한 멘토 역할 수행하면서 도서관 투어와 자료 검색 방법 교육이나 다국어 지원 서비스 제공 등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학술정보 활용 교육에 치중하고 있다.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학생 대상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며, 비교과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부서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도서관에 특

화된 멘토링으로 외국인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 1:1 맞춤형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이 좋을 것이다.

3.4 문화적/심리적 지원

3.4.1 심리적 지원 서비스

조사 결과에서 보듯 학업 부진 유학생들의 경우 전문 상담가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 스트레스와 심리적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A대 학교 도서관에서는 과거에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학생들에 호응을 얻었으나 코로나 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중단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재개하여 특히 한국사회 적응, 학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을 제안해 볼 수 있다. 만약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사용되는 치유서는 중학생 정도 수준으로 맞추어서 쉽게 이해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도서관 내에 가칭 “Global Library Fellows”와 같이 유학생들로 구성된 도서관 홍보대사를 운영하면서 문화간 소통을 위한 이벤트를 개최하거나 다국어 도서관 이용 가이드를 제작하여 보급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유학생들의 참여와 피드백 반영, 언어적, 문화적 장벽을 고려한 다국어 지원, 학업 주기별 지원, 학과 및 다른 부서들과의 협력 등이 관건이 될 것이다.

3.4.2 커뮤니티 공간 제공

최근의 대학도서관은 학습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넘어 다양한 학생자율활동과 참여, 공유

활동 그리고, 문화활동의 장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한 경향을 반영해서인지, 응답자들 중에도 외국인 학생들의 커뮤니티 활동, 그룹스터디 등을 위한 별도의 공간에 대한 요구를 비친 경우가 있었다. 해외의 대학도서관 중에는 가령 Global Commons 또는 Global Plaza를 운영하는 예가 있는데, 이 공간은 외국인 학생들의 커뮤니티 공간이기도 하지만 언어 교환 프로그램(Language Exchange) 등 내국인 학생과 유학생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구성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외국인 학생들이 모국어를 다른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동시에 다른 언어를 배우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언어와 문화 간의 차이를 이해하며, 문해력을 증진할 수 있다. 유학생간의 멘토링 프로그램 문화간 교류 이벤트 다국어 온라인 학습 자료 제공도 가능하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고립감 축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3.4.3 학업 전용 공간

외국인 학생들이 그룹 스터디를 하거나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전용 공간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학업에 부진한 학생들의 소극성이 반영된 요구라 보이기는 하지만, 일반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지욱과 이용재(2022)의 연구에서도 외국인 이용자 전용 PC 공간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도서관 이용에 도움을 주고, 한국 학생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공간적 제약을 많이 안고 있는 국내 대학도서관에서 외국인 유학생

을 위한 공간을 별도로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도서관 내에 Global Commons 또는 Language Exchange를 설치하거나 대학 내 국제처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Global Lounge 등의 공간에 스터디 코너를 지정해 주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교육부의 Study Korea 300K를 비롯한 적극적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면서 학업이 부진한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 역시 부득이하게 동반되는 현상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은 국내 대학들에게 공통적인 고민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때 대학도서관이 이러한 상황을 기회로 삼아 적극 대응함으로써 대학도서관의 서비스를 다변화하고 대학 내에서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학업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겪고 있는 학업의 애로사항과 생활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여기에 대학도서관이 개입할 수 있는 서비스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학업수행 과정에서 어려운 점, 정보요구, 도서관 서비스 이용 현황과 요구사항 등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학도서관의 외국인 유학생 대상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대체로 소극적이고 무기력해 보이는 학생들이지만, 대학도서관이 선제적으로 이들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학업 성취를 높이고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이 있다. 대학도서관이야말로 언어 지원, 문해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커뮤니티 공간 제공 등을 통해 학업 측면의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기관일 뿐만 아니라, 생활지원, 커뮤니티 활동 지원, 문화적/심리적 지원 등 학생의 실생활에 실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도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가 학업부진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대학도서관의 서비스 방안을 고민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 (2023).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 동정문, 오의경 (2021). 도서관서비스 품질요인이 유학생의 도서관 지속적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문현정보학회지*, 55(1), 415-437.
- 유지윤, 정동열 (2020). 대학도서관 외국인 이용자의 도서관불안의 특성과 해소방안 연구. *한국비블리*

- 아학회지, 31(1), 21-42.
- 윤정원 (2022). 외국인 유학생의 정착단계에 따른 정보추구행위. 한국문현정보학회지, 56(1), 27-45.
- 이지우, 이용재 (2020). 대학도서관의 외국인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K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3), 281-302.
- 장혜승 (2022.9.28). 대학 중도포기 유학생, 10명 중 7명 불법체류자. 한국대학신문.
출처: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34642>
- 정경희, 김영순 (2018).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교육 서비스 경험에 관한 연구: 수도권 지역의 A대학교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4(3), 547-566.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Dong, Jing Wen & Oh, Eui Kyung (2021). Study on the influence of library service quality on international students' continuous use inten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5(1), 415-437.
- Jang, Hye Senug (2022, September 28). 7 in 10 dropout international students become illegal residents. University News Network. Available: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34642>
- Jung, Kyung-Hee & Kim, Young-Soon (2018). A study on the Chinese students' experience of Korean university education services: focused on the case of A university.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4(3), 547-566.
- Lee, Ji Wook & Lee, Yong Jae (2020).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foreign user services in academic library: focusing on the K University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1(3), 281-302.
- Yoo, Ji-Yoon & Jeong, Dong-Youl (2020). A study on traits and remedy of library anxiety among international users in academic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1(1), 21-42.
- Yoon, Jung Won (2022).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throughout the settlement stages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6(1), 27-45.